

Latin American Culture

문화예술

웡카와이 영화에 나타난 라틴아메리카의 흔적

김명석

1. 아르헨티나로 간 홍콩인 이야기

한국영화를 우리 스스로 비하해서 방화(邦畵)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 요즘처럼 매년 10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는 한국영화가 아예 존재하지 않던 그 시절은 우리 영화계의 암흑기였던 모양이다. 홍콩영화나 라틴 음악을 듣는 것조차 부르주아 문화로 손가락질 당하던 시절,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이 인기를 끌고, 웡카와이(王家衛)의 영화가 개봉되었다. 그것은 90년대 말, 세기말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급변하는 징조이기도 했다.

웡카와이의 영화는 세련되었다. 뮤직비디오에서나 볼 수 있는 촬영기법과 감각적 영상미, 탁월한 OST... 20년 전 게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시절, 이들을 호모라 치부하고 동성애라는 말도 꺼내기 어색하던 때 웡카와이의 영화 한 편이 개봉되었다. 바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배경으로 하는 「해피투게더」(1997)이다. 당대 최고의 홍콩배우 레슬리청(張國榮), 링치우와이(梁朝偉)가 등장하는 영화인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두 스타 배우의 동성애 행각이다. 하지만 우리는 넘치는 호기심으로 숨죽이며 이들을 지켜볼 뿐이었다. 이들이 80년대 홍콩 누아르를 누비면서 갖게 된 오마주(hommage) 때문일 것이다. 웡카와이가 한국에 알려지기 전, 「아비정전」(阿飛正傳)이 1990년 개봉되었을 때 ‘뭐 이 따위 영화가 있냐’고 관객들이 항

의를 하다 코아아트홀의 문을 부숴버렸다는 시절과는 격세지감이다.



「해피투게더」 포스터 (출처: <http://82313.tistory.com/31>)

「해피투게더」는 아르헨티나로 간 홍콩인들의 이야기이다. 영국의 식민

지였던 홍콩이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되던 그 해다. 왜 하필 아르헨티나일까? 영화 속 내레이션에 따르면 그곳이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이다. 가슴 아픈 식민지의 역사를 가진 라틴아메리카는 식민지의 반환 이후를 체험해보는데 최적의 장소였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아르헨티나로 떠난 것, 이구아수 폭포를 보러 지구 최남단 등대를 찾아가고 홍콩으로 돌아가기 전에 타이완에 잠시 머무는 것은 모두 피식민지인의 유랑인 셈이다. 윙카와이 영화에서 반복되는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떠남은 디아스포라의 여정이다. 특히 「해피투게더」는 상하이 출신 홍콩인 감독으로서 그가 홍콩 반환을 앞둔 홍콩인들의 고독과 방랑을 담아낸 영화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2. 윙카와이와 라틴아메리카 문학

윙카와이의 필모그래피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영향은 분명해 보인다. 1995년 린야오더(林耀德)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틴아메리카 작가의 영향이 가장 큰 것은 『거미여인의 키스』를 썼던 작가입니다. …… 지금 와서 말하자면 제가 영화를 찍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그 작가입니다. 그러나 그 작가의 최고 작품은 『거미여인의 키스』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조그만 입술』로 아주 위대한 작품입니다.

아르헨티나를 선택한 것은 내가 라틴아메리카 소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어페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찍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아주 멀기고 하고 안 가보기도 했고…… 지구상에서는 홍콩과 정반대되는 곳이기도 해서 그곳을 고른 것입니다.

이 작가는 바로 아르헨티나의 마누엘 푸익(Manuel Puig)이다. 「해피투게더」의 원제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어페어’인데, 이 역시 푸익의 작품이지만 영화 내용과는 무관하다. 윙카와이 역시 좋아하는 소설로서 영감을 얻었을 뿐이라고 한다. 윙카와이 영화의 특징 중 하나는 서사가 시간의 순

서나 기승전결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비정전」은 물론, 「동사서독」(1994), 「중경삼림」(1994)과 이후의 영화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만의 방식이다. 흐트러진 단락을 조합해서 플롯을 구성하는 이런 작법이 푸익의 글쓰기와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거미여인의 키스』는 푸익이 스페인 망명 중에 발표한 소설로 사회주의와 동성애라는 파격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다. 제3세계 소설로서 『거미여인의 키스』가 영화, 뮤지컬, 영화 등으로 다양하게 재생산되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던 비결은 이 소설이 영화소설(Film Novel)이라는 점도 한몫했다. 총 6편의 영화가 등장하는 이 소설은 대부분 대화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자는 소설을 읽으면서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반(反)페론주의 소설이면서 역사적 주제가 대중문화와 잘 결합되어 있다. 마치 「해피투게더」에 홍콩반환이라는 역사적 알레고리가 라틴음악과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다. 『거미여인의 키스』는 70년대 중반에 발표되었지만 ‘미래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다. 다가올 미래, 80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을 말하는 이 소설은 영화 제작과 극작을 겪었던 왕카와이에 의해 홍콩반환을 앞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영화 속에 재현되었던 것이다.

『거미여인의 키스』에서 두 사람은 감방에 갇혀 있다. 여기서 두 사람간의 사랑이 싹튼다. 각주처럼 삽입된 동성애를 보는 관객은 억압된 성의 해방을 목도한다. 이를 통해 푸익은 동성애를 비도덕적으로 보는 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감옥은 「해피투게더」에서 보영(張國榮 분)과 아휘(梁朝偉 분)가 사랑하고 싸우고 헤어졌다 다시 합치는 단칸방으로 탈바꿈한다. 보영과 아휘에게 단칸방은 사랑의 유토피아지만 출구가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거미여인의 키스』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독자라면 「해피투게더」를 보아도 동성애를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식할 것이다. 사랑을 선별하고 배제하는 닫힌 사회라면 이들의 사랑은 구역질나는 변태행각에 지나지 않는다. 대신 열린사회라면 이질적 요소도 공존할 수 있다는 해방구로 그려질 수 있다. 냉전이 해체되고 한국의 모 대통령이 세계화를 부르짖던 시절, 「해피투게더」는 홍콩과 라틴아메리카라는 어울리지 않을 듯한 문화공간의 공존을 보여주었다. 이구아수 폭포의 끝에 선 아휘는 지역화와 세계



단칸방의 보영과 아휘 (출처: <http://screenmusings.org/movie/blu-ray/Happy-Together>)

화라는 양극단에서 절묘한 균형 잡기를 하던 참이었다. 이들의 만남과 헤어짐, 디아스포라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다원주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뽀카와이가 보여준 셈이다.

뽀카와이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라틴아메리카 작가로는 가르시아 마르케스를 들 수 있다. 뽀카와이의 영화 속 소외된 도시인에게 고독은 숙명적이다.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 년 동안의 고독』에서 부엔디아 가문 사람들을 지배하는 고독도 숙명적이다. 그것이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지배하는 태생적인 고독이기 때문이다. 뽀카와이 영화 속 인물들의 고독은 피식민지인의 디아스포라에 기인한다. 이들이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사랑이다. 그러나 이런 고독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사랑은 영화 속에서처럼 필연적으로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다.

『백 년 동안의 고독』의 인물들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왕』처럼 출발-시련-귀향을 반복하는 여정을 보인다. 그것은 프라이(Northrop Frye)가 말한 봄-여름-가을-겨울의 계절 순환적인 양식과도 겹쳐진다. 뽀카와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다. 『해피투게더』의 후반부에서 아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97년 1월, 나는 마침내 세계의 끝에 도달했다. 이곳은 남미대륙 남쪽 마지막 등대이다. 더 가면 남극이다. 갑자기 나는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아휘 역시 오이디푸스처럼 출발-시련-귀향의 길을 걸은 셈이다. 대부분의 윙카와이 영화에서는 사건의 연대기적 순서가 무시되고 뒤죽박죽 섞여 있다. 주로 플래시백의 사용을 통해 시공간이 뒤섞이는데, 그렇게 선형적 시간성은 파괴되고 찰나의 기억은 영화 속에서 역사 속 현실로 재현된다. 혹자는 윙카와이의 영화가 동양 미학처럼 선회 왕복하는 구조라고 한다. 그러나 순환은 미시적인 직선의 집합체이고, 모든 순환은 원과 직선의 배합이 아니던가? 『백 년 동안의 고독』도 계절적인 순환의 양식으로 볼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직선적인 비전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인물들의 디아스포라가 꼭 원(圓)처럼 원점 회귀가 아닌 것은 가르시아 마르케스나 윙카와이 모두에게 마찬가지다.

3. 윙카와이 영화 속 라틴아메리카 음악

또 하나, 윙카와이 영화에서 라틴아메리카의 흔적은 음악에서 두드러진다. 그는 영화에서 왈츠, 탱고, 라틴재즈, 락, 전자음악, 광둥어 유행가, 지방극의 곡, 민요, 나이트 올드팝, 심지어 다른 영화의 OST까지 활용한다. 세계 각지의 음악은 영화 속 인물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 방랑하기에 더 잘 어우러진다. 그렇게 이국적 정취와 함께 디아스포라의 노스텔지어가 만들어진다. 그의 음악은 종종 화면에 시적인 효과를 투영하고 영상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음악은 영화를 독특하게 만들고 관객이 사색에 잠기게 해서 형용 못할 느낌 속으로 이끈다.

특히 「해피투게더」에는 라틴아메리카 음악이 적지 않게 삽입되어 있다. 탱고가 대표적인데, 서로 집착하면서 느릿느릿 외로이 맴돌다 기진맥진하는 모습은 사랑에 눈 먼 연인을 떠올리게 한다. 윙카와이는 이렇게 탱고로 사랑을 해석한다. 보영과 아휘도 감정에 몰입했다가 물러나 헤어



지고 다시 시작하는 탱고처럼 온 몸으로 열정적인 사랑을 한다. 뽀카와이가 이 영화에서 선곡한 곡은 주로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격정의 탱고」(Tango Apasionado)이다. 피아졸라는 이 곡을 서곡(Prologue), 고뇌(Milonga), 마지막 곡(Finale)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나뉘어 올려퍼지는 노래는 영화에서 주인공 아휘와 보영의 감정 변화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징표가 된다.

연인은 사랑하고 미워하고, 만나고 이별하는 과정을 쳇바퀴처럼 반복한다. 이 곡이 영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지지만 연인 간에 반복되는 다툼, 상대방 때문에 일어나는 즐거움과 외로움, 아픔과 무기력함, 질투와 회한 같은 감정은 결국에는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 크리스토퍼 도일이 촬영한 영상 밖의 소리로 음악이 깔리면서 음산하고 창백한 아르헨티나의 도시가 펼쳐지고 연인에 대한 애증의 교착이 함께 만들어진다.

「격정의 탱고」 서곡은 반노네온(아코디언의 일종)으로 연주하는데, 처량하고 고독한 느낌이다. 바로 보영이 “아휘, 우리가 다시 오는 게 낫겠네”라고 하는 대사 다음에 삽입된다. 두 사람은 이렇게 싸우고 나서 이구아수 폭포를 찾아가는 길에 우연히 만나게 된다. 보영은 아휘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으려던 참이었다. 이때 서곡이 이구아수 폭포의 장엄한

모습과 함께 울려 퍼진다. 처량한 서곡에서 이미 그들의 결말이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관객에게 암시해준 셈이다.

다시 두 사람이 탄 택시 위. 선율이 경쾌하게 변하면서 화면이 흑백에서 컬러로 전환된다. 「걱정의 탱고」가 우울한 버전으로 다시 울려퍼진다. 아휘는 보영에게 담뱃불을 붙여준 뒤 의기소침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활기찬 모습으로 바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 아휘는 혼자서 차를 몰고 처음 보영과 함께 가려고 했던 이구아수 폭포를 향해 간다. 보영은 다른 곳에서 새로 만난 동성 애인의 품에 기대 춤을 추고 있다. 아휘가 도살장에서 물을 뿌려 핏자국을 씻을 때 이 곡이 또 울려 퍼진다. 이상하리만큼 또렷이 들리는데 마치 “우리가 다시 오는 게 낫겠네”라는 보영의 말을 떨쳐버리려 애쓰는 아휘의 심경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들의 사랑이 영화 속에서 다채롭게 변주된 음악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관객은 이별과 재결합을 이해하게 된다. 알고 보면 이들은 피비우스의 띠처럼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운명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곡은 「세 사람을 위한 밀롱가」(Milonga for three)이다. 이 곡은 처음 아휘와 보영 두 사람이 비좁은 주방 안에서 춤 출 때 들린다. 그들은 서로를 원한다는 눈빛을 교환한다. 관객의 귓전에 감미롭게 맴도는 음악은 마치 「해피투게더」의 중국어 제목 춘광사설(春光乍泄)이 의미하듯이 아름다운 봄빛을 들려주는 듯하다. 이렇게 종종 찰나의 아름다움이지만 애상어린 음악이 화면에 뒤섞이면서 관객에게 감동을 준다. 이 곡이 두 번째 울려 퍼지는 것은 홀로 바닷가에 간 아휘가 물살을 가르며 배 위에 앉아 있을 때이다. 정신적으로 더없이 억압되어 있는 그는 무기력하다. 그가 이미 보영의 곁을 떠나기로 한 뒤여서인지, 첼로와 아코디언이 음표를 길게 늘여서 변주하는 곡은 더 구슬프게 들린다.

「걱정의 탱고」 피날레는 이들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끝남을 알려주면서 더 서글프게 들린다. 이 곡의 음표는 서곡의 선율과 겹쳐진다. 보영은 아휘와 함께 세 들어 살던 방으로 돌아오고 이구아수 폭포가 애니메이션처럼 반짝거리는 스탠드를 들여다본다. 그리고 예전에 함께 덮었던 이불을 꺼안고 통곡한다. 이때 아휘는 이미 폭포에 와 있을 때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독백이 울려 퍼진다.

나는 갑자기 힘들어졌다. 나는 이 폭포 아래에 서 있는 이는 분명 두 사람이 있을 거라고 시종 느꼈기 때문이다.

휘날리는 물보라는 아휘의 얼굴을 적시고 그것이 눈물인지 물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든다. 이 시퀀스는 아휘가 녹음기에 남긴 울음 섞인 목소리를 떠올리게 만든다. 그렇게 자주 입에 올리던 ‘사랑한다’는 말, 그럼에도 이토록 무기력한 것은 왜일까? 그러다가 환하게 밝아진 화면 속에는 더 이상 비장함도 처량함도 남아있지 않다.

동성 연인 간의 불안정한 사랑싸움은 「해피투게더」의 주요 모티프이다. 보영과 아휘는 연인 간에 일상적인 사랑과 미움, 만남과 이별을 보여준다. 영화 속 연인들의 소통은 두 사람이 단칸방에서 짐승처럼 싸우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서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트집 잡고 말다툼하고…… 그들의 대화는 일상생활 속 시시콜콜한 넋두리에 불과하다.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병나게 하고서야 마음이 편해지는 모양이다. 그들은 입에 풀칠 할 만큼만 돈을 벌어서 생활한다. 상대방이 깊은 밤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담배를 사준다. 그러고는 대판 싸움을 하고 온갖 악담을 퍼붓는다. 상대방에게 밥 한 끼 해주고도 사랑을 능숙하게 속삭이지 못하지만, 탕고가락에 맞춰 춤을 출 때만은 그들이 함께 행복하던(happy together) 순간이었다.

앞서 언급한 이구아수 폭포 신에서 윙카와이는 브라질의 밥 딜런이라 불리는 카에타노 벨로소의 유명한 곡 「쿠쿠루쿠 팔로마」를 삼입한다. 이구아수 폭포를 찾는 것은 아르헨티나에 온 초심과 꿈 때문으로, 그것은 두 사람이 다시 사랑을 시작하기 위한 길이었다. 두 사람은 동성애자지만 사랑에 대한 가치관은 전혀 다르다. 그들의 감정은 다른 이성커플보다 더 예민하고 취약한 듯하다. 이 노래의 곡조는 부드럽고 서정적이다. 섬세한 노랫소리가 폭포소리와 뒤섞이면서 보영에 대해 아휘의 애증이 교차함을 보여준다. 윙카와이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벨로소가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쿠쿠루쿠 팔로마」라는 곡을 삼

입한 것 외 나머지는 포르투갈어로 불렀다. 나는 이 노래가 60년대 홍콩에서 상당히 유행했다는 걸 알고 그걸로 영화 속 주인공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들어가는 복선으로 깔았다. 이 노래를 번역해달라고 적어도 5번이나 부탁했지만 매번 번역된 결과가 달랐다. 하지만 다들 이 노래가 비둘기와 관련이 있다는 데는 의견이 같았다.

부드럽고 서정적인 노래가 스페인어로 울려 퍼지지만 이어지는 장면은 보영이 도로 위에서 아휘와 헤어지자고 하는 신이다. 아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낀다.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아휘의 뒤로 이구아수 폭포의 웅대하고 장려한 모습이 무지개처럼 화면을 뒤덮는다. 두 사람은 원래 폭포를 여행의 종착지로 삼았지만 결국 아휘 혼자서 홍콩으로 돌아간다. 사랑의 유토피아를 찾아 나섰지만 여행의 종점까지 가지도 못하고 헤어지게 된 것이다.

영화에서는 「쿠쿠루쿠쿠 팔로마」의 가사를 번역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래 가사는 대단히 아름답다. 이 노래 가사는 라틴아메리카에 구전되어 오는 전설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어느 남자가 여자를 무척 사랑했는데, 마음을 고백했지만 거절당했다. 그 날 밤새 방에서 울던 남자는 자살을 하고 만다. 그 뒤 비둘기 한 마리가 그의 정원을 맴돌며 구슬피 울었다. 주위 사람들은 이 비둘기가 사랑에 미친 그 남자의 환생이라 여기고 비둘기에게 말했다. “더 울지 마라, 더 슬퍼하지 마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보영은 목숨을 사랑과 바꿈으로 뜻을 이루고자 했을까? 영화 속 보영 역할을 한 레슬리청은 2003년 홍콩의 호텔에서 옥상에서 홀연 몸을 던지고 만다. 영화에서처럼 동성 애인과 갈등이 있었다는 말이 들린다. 아휘의 속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맞이한 식민지 홍콩의 반환, 보영에게는 그 미래가 못내 절망적이었던 모양이다. 홍콩이 영국 식민지가 된지 100년, 그 ‘백 년 동안의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던진 레슬리청. 그는 갔지만 애절한 사랑은 「쿠쿠루쿠쿠 팔로마」의 노랫소리가 되어 여전히 우리 귓전을 맴돌고 있다.